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
| | | 배포일자 | 2022년 10월 27일(목) 총 5매 | |
| 담당 부서 | 예산담당관 | 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괄담당 • 사회경제예산담당 • 도시환경예산담당 • 참여예산담당 • 담당자 | 고태수 ☎440-2251 문현자 ☎440-2261 강 욱 ☎440-1601 유선필 ☎440-2241 채은자 ☎440-2272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내년도 예산 14조, 시민 행복한 초일류도시 도약에 집중

- 역대 최대 본예산 규모, 전년 대비 5.9% 증가한 13조 9,245억 원 -
- 건전재정기조 확립,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 마중물 사업 착수 -
-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 위한 미래투자 확대 -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약 14조 원 규모로 편성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번째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 9,245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13조 1,442억 원) 대비 7,803억 원(5.9%) 증가한 것으로 개선된 세입 여건과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리채무비율은 13%대를 유지하고, 총 부채규모는 9

조 원대로 관리하는 등 민선8기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2023년 세출 예산은 ①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 우선 배분, ②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③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2023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 세계초일류 도시기반 조성이다.

지역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3조 2,144억원을 투자하고, 사회안전망 보강 및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4조 8,125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개발, 도로 건설 등 세계초일류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 조성에 2조 9,429억원을 반영했다.

□ 먼저,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3조 2,144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4,198억 원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인천 청년창업가에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해 현지 법인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련해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제도 개편방안으로 발표한 캐시백 차등 지원(5~10%)을 유지하고자 2,019억 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758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 등 농가 및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1,026억 원을 반영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제3연륙교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9,782억 원을 투입한다.

또,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속도 완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한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 시민행복 사업에 1조 4,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보강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은 4조 8,125억 원을 반영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2,504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삶의 기반이 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 ① 생계급여 '22년 105,118명 → '23년 116,680명, 주거급여 '22년 88,148가구 → '23년 105,307명, 긴급복지 '22년 32,228명 → '23년 45,240명
- ② 【인천형】 디딤돌 안정소득 '22년 220 가구 → '23년 400 가구,
SOS 긴급복지 '22년 2,777명 → '23년 3,520명

정신건강 지원, 전염병 예방접종,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소방역

량 강화 등에는 9,214억 원을 집중 투입해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다.

균등한 문화 접근 기회 제공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 확산, 해양도시 인천의 장점을 극대화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에도 4,68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1,727억 원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세계 초일류도시 기반 조성에는 2조 9,429억 원을 편성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노약자와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기 위해 6,4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도입 차원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제물포역 일원 인프라 구축 등 도시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5,591억 원을 투입한다.

저탄소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는 5,262억 원을 편성해 민간

의 전기·수소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2,163억 원을 반영해 총 33개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고, 1호선과 7호선 연장 등 철도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구상하며 준비했다”며, “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달라진 인천의 모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 2023년 인천시 예산안 개요